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33, 요한 1서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신약 역사와 문학의 요한서신 33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아요, 몇 가지 공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수업은 강의와 수업 토론에 관한 한 이번 수업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주에 시험이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월요일이 될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가 공식적인 수업의 마지막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월요일에는 4번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두 번째 문제는 목요일 밤이 4번 시험에 대한 다음 추가 학점 검토 세션이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요일 밤 8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이 강의실에서 4개 시험에 대한 마지막 추가 학점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월요일에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는 이번 주에 다루어야 할 내용이 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 그룹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으로 이동하여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 책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말고사 시간에 맞춰 돌아올 때까지는 그게 다일 것입니다.

괜찮은. 기도로 시작하고 신약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위한 마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때때로 혼란과 의문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건

가운데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안전한 희망을 주시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문서를 검토하고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그 현실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 희망을 기억하고, 특히 그 희망을 살아내야 할 필요성, 그 절박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밖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참은.

우리는 일반 서신, 또는 다른 이름이 카톨릭 서신이라는 라벨을 붙인 문서 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자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때로 일부 글에서 서신서를 카톨릭 서신으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쓰였거나 그와 관련된 서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보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된 용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일반서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글들을 선별하여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소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와는 대조적으로 히브리서로 시작하는 서신은 히브리서가 더 특정한 청중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전달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서신, 특히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일반서신 또는 카톨릭서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문서, 오늘 보고 싶은 문서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일반 서신 또는 가톨릭 서신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저작물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 1서, 2서, 3서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을 위한 약간의 연습이 있습니다. 관참은. 내가 말했듯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의 마지막 섹션은 일반 서신이나 가톨릭

서신의 더 넓은 모음 내에서 제가 고려하고 싶은 마지막 책 그룹입니다. 이 편지들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쓰여졌거나 적어도 두 권의 서신입니다. 독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편지 중 실제로 두 통은 매우 매우 짧고, 특정 교회에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서신으로 가장 잘 분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비록 편지에서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생략해야 할 부분이 많고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왜 쓰여졌는지,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안하겠지만 동시에 실제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편지군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후서와 관련하여 유다서를 살펴봤지만 요한 1서, 2서, 3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요한 1서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히브리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저자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편지처럼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편지인지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요한1서의 편지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편지처럼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전 세계 누가 쓴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구절로 바로 넘어가서, 태초부터 있는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는 너희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1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편지를 어디로 보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우편배달원이고 이것이 실제로 편지이고 그것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를 주의 깊게 읽고 교회 전통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아마도 가능한 그림을 함께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교회사, 그리고 교회사란 주로 신약성서가 기록된 후 2, 3, 4세기의 교회 교부들, 지도자들, 저술가들을 의미합니다. 모두 요한 1서, 2서, 3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편지는 John이 썼습니다.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는 요한이 여럿 있었고, 요한을 저자로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한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매우 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편지는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 초대 교회 교부들, 매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썼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만이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초기 교회의 증언에 따르면 요한, 아마도 사도 요한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로 적합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 1서, 2서, 3서는 이 편지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편지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표시하기 위해 거기에 두었습니다.

독자들에 있어서는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복음을 비교할 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들이 어떻게 서로 들어맞는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구성해 왔고, 역사적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 1서를 읽으면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왜 그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네 번째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복음서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영지주의적 유형의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단 또는 거짓 가르침.

이 수업의 아주 초기에 우리는 다양한 종교적 선택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고 그 중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이제 영지주의가 2세기, 즉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장이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세기 말, 즉 2세기 말까지 본격적인 종교 가르침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모든 요소가 이미 발전하고 있었고 나중에 대문자 G와 소문자 g를 사용하여 본격적인 영지주의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는 1세기에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지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영적인 것에 대한 강조, 즉 육체와 물질 세계의 투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구원에 대한 강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은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닌 소수의 엘리트만이 얻을 수 있는 비밀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부분적으로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직 2세기의 본격적인 영지주의가 아니었다면 이미 1세기 후반에 초기 형태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원, 육체를 벗어난 구원, 영적인 존재, 엘리트, 소수만이 알 수 있었던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그것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요한 1서가 등장하는 곳은 당시 요한 1서는 이러한 영지주의 유형의 이단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그들은 이미 교회에 침투해 있었고,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유형의 교사들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일서를 해석하는 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로 알고 있는 서신에서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룹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반박했을지도 모르는 이 교사들은 이제 교회에 침투하여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성공하고 있으며, 현재 요한이 요한1서에서 말하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주의, 영적 구원을 강조하고 이 비밀 지식의 소유를 강조하는 동일한 영지주의 교사들이 이제 공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요한의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3서는 교회가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점령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일부는 심지어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장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소는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이며,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조차도 이보다 더 나은 단계를 제안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르침의 맥락에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이 편지에서 일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종의 진전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것이 약간 의심스럽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다지 많지 않은 증거를 바탕으로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요한삼서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증거가 없으며 이에 대한 최선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1서가 실제로 이 거짓 교사들이 떠난 후 남겨진 그리스도인 그룹의 교회에 말하고 있고, 이제 요한은 지금 남겨진 이 작은 그리스도인 그룹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 계획은 아마도 너무 미미하고 무미건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순서가 올바른 순서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신약성경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요한 2서, 요한 3서가 그 순서대로 기록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1서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인 그룹을 남겨둔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서는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런 순서로 기록되었는지 아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이 이 책들이 쓰여진 올바른 순서라고 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순서를 따를 것입니다. 자, 특히 요한일서의 배경에 관해서라면, 제가 말했듯이 요한일서가 다루고 있던 문제는 분리주의자, 즉 교회를 탈퇴하거나 떠난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그들이 아직 2세기의 본격적인 영지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미 영지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면, 즉 구원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육체적인 것을 부인하며 소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밀 지식, 이 지식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에게 속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강조하자면,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떠났고, 탈퇴했으며, 그들이 남긴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비밀 지식의 소유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 그룹에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두들겨 맞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이 거짓 가르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지식을 소유한 소수의 엘리트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은 외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 자신의 영적 지위에 의문을 품고 있는 궁지에 몰린 이 작은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의 주요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John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구타당하고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시나리오와 함께 정리하기 위해 이제 요한은 독자들에게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글을 씁니다. 그들은 실제로 영생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 교사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손상시키고 이제 교회를 떠나 성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신시키기 위해 글을 씁니다.

이제 John이 이 편지에서 하는 방식은 노트의 다음 섹션에서 세 가지, 실제로는 세 가지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1서의 계획은 세 가지 시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떠난 거짓 교사들이 아닌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세 가지 시험을 주며 그의 편지에서 그는 이 시험을 두세 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야고보가 믿음과 인내, 지혜와 말 등의 주제를 순환하는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요한1서는 독자들이 자신의 참된 영적 상태를 입증하고 확신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두세 번 순환되는 첫 번째 것은 사랑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고, 그들의 영적 지위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을지, 왜 거짓 교사들이 그랬을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그러나 요점은 요한이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잡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행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은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만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거나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왜 그가 이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혹은 예수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임을 믿는다면 그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바울은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너희가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어찌하여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느냐? 육체? 아마도 그것을 구약성서의 성취와 다시 연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가르침은 다시금 부정하고 거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응.

만일 그가 구약의 배경과 함께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영지주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아마도 예수가 인간임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그것을 다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독자들 사이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참으로 인간이었는지 의심하려는 유혹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Docetism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이 수업 초기에 Docetism에 관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Docetism은 나중에 교회에서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처럼 보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생각하다, 또는 걸으로 보인다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도케오(dokeo) 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Docetism을 얻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인간으로만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그는 단지 인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이 강한 영지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다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의 강한 대조 때문에 예수가 진정한 인간이 아니거나 그의 인성을 부인했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구원은 육체와 물질 세계로부터의 탈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이에 비추어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막 떠난 거짓 교사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면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며 신성이심을 부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분의 인성을 고수하고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테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말했듯이 책 전체에서 두세 번에 걸쳐 순환됩니다. 저는 아마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세 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인 학대와 이제 우리를 떠난 거짓 교사들에 의해 우리가 영적으로 상처받고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일종의 소수이고 궁지에 몰린 그리스도인 집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1서는 제가 보기에 가장 당혹스러운 진술을 담고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진술 그룹은 요한일서 1장, 특히 3절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3절에 있는 것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3장 6절, 9절., 그리고 10.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를 언급하면서 예수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본 사람도 없고 그분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꽤 강한 언어네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는 모국어와 생물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죄송합니다,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옳은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며,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오히려 절대적이고 놀라운 언어입니다. 요한이 나서서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하면 다시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John은 자격조차 없습니다. 가끔 죄를 짓거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죄를 짓는 생활 방식이 아니면, 그냥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1장과 8절, 10절에 있는 요한의 또 다른 두 진술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1장 8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 질문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은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말은, 요한은 다시 한번 강한 어조로 간단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이고,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노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모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걸로 뭘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 말은, John이 뭔가를 쓰다가 몇 페이지 후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쓸 정도로 멍청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글썄요, 우선, 왜 우리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죄에 동의할 것입니다.

영원 이 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우리에게 죄가 없고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또는 어떻게든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John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것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John이 무엇을 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들 사이에 나오는 구절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어쨌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께로 향하여 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조금 이상해 보이는 첫 번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뚜렷한 진술이 어떻게 병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기독교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NIV나 새로운 국제판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이 구절들을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NIV에서는 당신이 계속 죄를 지을 수 없거나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든지, 너희가 계속 죄를 짓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NIV는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를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만드는 새로운 국제 버전에 동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즉, 생활 방식으로 죄를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John의 진술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그는 기독교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지금은 다른 변장, 다른 변장을 한 긴장감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바울이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John이 여전히 같은 긴장감을 다른 모습이나 다른 형태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바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이며 명령을 반영합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한일서와 신약성경 내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서로 다른 시기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가 그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거나 죄를 짓는 것이 낫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에 대한 핑계로 삼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인의 죄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는 시도로 인해 좌절할 때, 아마도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심하고 우리가 갈라지는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만 동시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삶의 서로 다른 시기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편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첫 번째 죄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로 인해 괴로워할 때, 속상하고 우리의 지위를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거나 용서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때, 우리와 죄를 극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좌절감이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듣습니다. 그래서 나는 긴장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한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계속 짓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점에 저는 확실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은 직설법 명령문과 명령문 사이의 긴장을 반영하여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사실이지만 아직 사실이 아닌 것이 이제 요한¹서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빨리, 응. 어느 것이 어느 것에 속합니까? 앗. 좋아요, 예, 첫 번째 것은 이미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의 표현을 사용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다소 냉혹한 진술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 죽었으니,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로마서 6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이미입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으로 인해, 요한이 말하는 이 거듭남으로 인해 절대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바울이 계속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을 의의 도구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요한 2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록 매우 강력한 기독교 증인이지만, 초기 기독교 증인은 이 책을 요한과 연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요한일서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강력한 초기 기독교 증언은 그것을 사도 요한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요한이서에서 저자가 자신을 어떻게 지칭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요한이서의 첫 절에서 장로는 실제로 편지처럼 시작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는 장로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장로가 택함 받은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말한다.

자, 저 선택된 여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교회의 수장이었던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가능성은 내가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가능성은 택함받은 여인이 교회 자체에 대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교회를 지칭하기 위해 여성의 이미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택하신 여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이 가정교회의 지도자인 실제 여성, 실제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한은 소수의 가정교회에 연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제가 요한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점은 아마도 초기 기독교 전통이 하는 또 다른 점은 이 세 글자, 또는 적어도 두 글자를 에베소라는 도시와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1서와 요한2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나 가정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편지 자체에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택하신 여인과 그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신자에 대해 아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서는 장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도 요한이라면, 이것은 그가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는 문자 그대로 교회의 머리인 여인이든, 은유적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여인이든, 선택된 여인에게 연설합니다. 아마도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가정 교회에 침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거짓 가르침, 아마도 요한1서에서 교회를 위협하고 지금은 떠난 것과 같은 종류의 가르침을 허용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서는 그런 종류의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한이서가 요한1서 이후에 기록되었는지 이전에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우리가 다소 난처한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이서 9절과 10절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는 유다서와 빌레몬서와 같은 다른 짧은 책들과 같은 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한이서 9장과 10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느니라.

아버지 와 아들을 모두 모십니다 . 이 교훈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는 자를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영접하지도 말라. 환영한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악행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사실 '이건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아요.'라는 전통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랄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증인이든 몰몬교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구절을 토대로 배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되고,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이 말하기를, 그것들을 집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을 장려하거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앞에서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을 집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백그라운드로 설정할 때에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1세기에 대부분의 교회가 집, 즉 작은 가정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집은 나의 개인 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일차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일 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집은 가정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식해야 할 점은 1세기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다른 회중에게 전파하는 순회 설교자와 교사가 있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누군가가 그들의 교회에 들어와 이것을 예배의 일부로서, 공동체의 일부로서 가르치도록 허락하고, 그들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설교의 기초.

존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집에 누군가를 들여보내는지 여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런 종류의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위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제공하는 1세기 교회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또다시 그들을 너희 집에 들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할 때, 내가 바꾸어 말하면, 이 순회 설교자들이 와서 이런 영지주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너희 가정 교회에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당신의 가정교회 내에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제가 요한이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요한은 이 거짓 교사들을 그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말라고 회중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단순히 그들에게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을 유지하고, 아마도 요한일서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가르침을 장려하고 있는 순회 교사들을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들을 그들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요한삼서를 빠르게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 2서가 요한 1서 다음에 나온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3서. 요한삼서는 다시 주의 깊게 읽어보면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는 책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한삼서는 그 자체로 짧은 편지일 뿐만 아니라, 교회나 교회 내부를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한삼서를 그 자체의 편지로 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요한 1서나 2서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자체로 작성된 완전히 별개의 편지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3서. 요한 3서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언젠가 자녀가 생겼을 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이름입니다.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권력 기반을 마련하고 추종자들을 모으려 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추종 세력을 세우려고 하여 분열시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편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근거한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1서의 메시지는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대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매우 가혹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를 참지 않을 것입니다. 즉,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는 말썽꾼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 기반을 구축하거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려는 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요한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다른 두 개보다 먼저 쓰여졌는지 아니면 나중에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짓 가르침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요한삼서는 단지 그 자체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관련이 없거나 요한 1서나 2서와 같은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가능해요. 우리는 요한일서에 대한 요한 2서 및 3서 표지인데, 이는 여러분의 교과서에서 제안된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한 2서와 3서는 너무 간단하고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 1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 1서, 2서, 3서에 관해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 2서와 3서는 특정 교회에 보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서한으로 가장 잘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편지 자체가 어떤 교회나 가정교회의 그룹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이서와 요한삼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특정 교회에 보낸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강력한 초기 교회 전통은 그것에 에베소와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편지 자체는 그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편지를 읽는 것의 일부입니다. 저자와 독자가 말했듯이 그것은 전화 대화의 절반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와 독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내가 알지 못하는 특정 정보를 알고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와 같은 편지를 읽을 때, 특히 요한 2~3서만큼 짧은 편지를 읽을 때, 정확히 저자가 누구인지, 독자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텍스트

자체에만 훨씬 더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텍스트 자체가 말하고 그것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과는 반대로 시나리오를 구성한 다음 텍스트에 강제로 적용하는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나머지 관심을 요한계시록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약 역사와 문학의 요한서신 33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